

한전, 베트남 원전 교두보 마련 인력·재원·현지화 협력 본격화

베트남서 원전 워크숍 개최
인력양성 협력 본격 시동
‘한국형 모델’ 노하우 공유
닌투언 원전 수주 초석 다져
탐코리아 수출전선 확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베트남 원전 수주를 위해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와 본격적인 협력 행보에 나섰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9월 3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PVN과 공동으로 ‘베트남 원전 인력양성 협력을 위한 공동위킹그룹(JWG)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8월 쩌 람(Tran 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을 계기로 체결한 ‘한전·PVN 간 원전분야 인력양성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한국의 원전 인력양성 경험을 공유하고 베트남의 인력양성 목표와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한전을 비롯해 한수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 본사 전경. /한전

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두산에너지빌리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 탐코리아가 참여했으며, 베트남 측은 PVN을 중심으로 산하 대학과 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양국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40명이 머리를 맞댔다.

베트남 정부는 2035년까지 닌투언-1·2 원전을 건설하고, 2050년까지 총 8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4000명의 원전 전문 인력을 양성할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이번 워크숍에서 탐코리아는 한국의 축적된 원전 교육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베트남 측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한전은 현지화·재원조달·인력양성 등 다층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베트남 원전사업 수주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한전은 워크숍 이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원전 담당 부국장과 PVN 부사장 등과 면담을 갖고, 향후 한전의 베트남 원전사업 참여 방안과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 해외원전개발처장은 “한전은 베트남 원전사업 인력양성 MOU를 시작으로 현지화, 재원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베트남 원전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 시대 초석 될 것”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감
전력·산업·수송 전 분야 탈탄소
기후재난 대비 범부처 대응 강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이 기후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맞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개편’을 핵심 국정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025년 430ppm을 돌파했고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사실상 1.5도를 넘었다면서, 이대로 가면 2030년 초반에는 450ppm을 넘어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지구온도가 2도를 넘으면 세계경제가 붕괴하고 3도를 넘으면 인류가 쌓아놓은 문명체계가 붕괴할 것이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고 경고한다”며 “탈탄소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존속,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회·경제구조부터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올해 진전의 원칙, 헌법에 명시된 국민 환경권,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전력, 산업, 수송, 건물, 생활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8.2대 1 ‘치열’

농식품부, 10월 중 6개 군 최종 선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대상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선정 규모(6개 군 내외)와 비교하면 8.2대 1의 경쟁률이다.

이번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된다. 선정된 6개 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

치단체 모두가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임에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신청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10월 중 농어촌 정책·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평가 과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총괄 연구기관과 지방 연구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만족도,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SK그룹, 중소기업에 특허 77건 무상이전

산업부-SK, 기술나눔 행사 개최
통신·스마트의료 등 핵심기술 공유

SK그룹이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77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년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를 열고, SK그룹 5개 주요 계열사와 기술나눔 수혜기업 50여 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이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나눔에는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등 SK그룹 계열사들이 참여했으며, 총 62개 중소·중견기업에 77건의 특허가 이전된다. 산업부는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개방해 산업생

태계 전반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상생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의 기술나눔은 2014년 SK하이닉스에서 시작돼 2021년 그룹사 차원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259개 기업에 392건의 특허를 무상이전했으며, 이번 행사로 누적 수혜기업은 300개를 넘어섰다.

올해 나눔 대상 기술은 통신, 반도체, 화학·소재, 스마트 의료 분야에 집중됐다. 대표 기술로는 SK텔레콤의 ‘생체인증 기반 전자처방 서비스 인증 시스템(특허 10-1746163)’이 꼽힌다. 이 기술은 환자의 지문이나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전자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종이처방전 사용에 따른 처방 오류를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결합 자동분류 시스템(특허 10-2483787)’, SK실트론의 ‘슬러리 재생장치(특허 10-1105698)’, SK이노베이션의 ‘나노입자 제조용액(미국특허 10479894)’ 등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이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전략 특강과 투자유치 컨설팅도 병행됐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제공된 SK그룹의 우수 기술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똑똑한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바디워시 피지 세정력 모두 ‘우수’

소비자원, 바디워시 10종 비교 결과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3.3배 차이
사용감 ‘쿤달’, 행굼 ‘꽃을든남자’ 최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바디워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정력과 안전성, 환경성 등을 비교한 결과, 피지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했지만 미세먼지 세정력은 제품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3.3배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피부에 쌓인 피지·먼지 제거를 위한 바디워시 품질 평가 결과, 피지 세정력은 모든 제품이 ‘우수(★★★★)’ 등급이었고, 미세먼지 제거력은 6개 제품이 ‘우수’, 4개 제품

은 ‘양호(★★★)’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세정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품은 ▲꽃을든남자(코스모코스) ▲더바디샵(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도브(유니레버코리아) ▲록시땅(록시땅코리아) ▲비온드(엘지생활건강) ▲일리운(아모레퍼시픽) 등 6개 브랜드였다.

제품별 사용감 평가에서는 ‘쿤달 허니애플카다미아 퓨어 바디워시(더스킨팩토리)’가 전반적인 만족도(3.8점)와 촉촉한 느낌(3.8점)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굼 정도는 ‘꽃을든남자 우유 바디사워(4.3점)’, ‘비온드 딥 모이스처

(4.1점)’ 순으로 높았다.

사워 후 잔향이 많이 남는 제품은 ‘쿤달’, ‘꽃을든남자’, ‘일리운’ 순이었고, ‘록시땅’과 ‘비온드’는 잔향이 적은 편이었다.

10개 제품 모두 남·수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고, 보존제 함량도 허용기준 이내였다. 용기 내구성도 낙하시험 결과 손상 없이 기준에 적합했다.

표시 적합성에서는 대부분 기준에 부합했으나, ‘뉴트로지나 데일리 바디워시(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개선을 권고했고,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의 표시를 수정했다”고 회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반려동물 학대·중독 대응, 국제공인 첫 인증

검역본부, 수의법의학 검사 공인

반려동물 대상 중독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 수준의 수의법의학 검사 체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내 최초로 수의법의학 분야 약독물(藥物) 검사 부문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살서제3종(쿠마테트랄릴, 브로디파름, 외파린)에 대한 검사체계를 국제기준(ISO/IEC 17025)에 맞춰 인증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발급되는 시험성적서는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법과학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약독물 검사는 동물의 조직이나 혈액에서 독성물질을 검출해 학대나 중독 여

부를 규명하는 핵심 절차다. 최근 5년간 반려동물 대상 학대·중독 진단 건수는 2019년 79건에서 2024년 131건으로 65.8% 증가했다. 이 중 살서제 중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으로 약독물 검사의 국제적 신뢰도를 갖추게 됐고, 검체 채취부터 분석·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의 표준화로 진단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검역본부 본부장은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동물학대 중독사건 대응의 과학적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도 동물학대 예방에 필요한 검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동물학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